

# V-리그 한국전력, '꿀찌에서 우승까지'

## 팀 창단 후 첫 한국배구연맹(KOVO)컵 우승

팀 창단 후 첫 한국배구연맹(KOVO)컵 우승을 이뤄낸 한국전력의 상승세가 매섭다. 한국전력은 지난 3일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청주·KOVO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1(25-20 18-25 25-19 25-21)로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팀 창단 첫 컵대회 우승이자 전승(5승) 우승으로 기쁨은 더욱 컸다.

한국전력은 창단 후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시즌 하위권을 맴돌았고 우승의 문턱은 높았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르다. 신영철 감독 부임 4년차를 맞은 한국전력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V-리그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한국전력은 전광인 서재덕이라는 결속한 토종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었다.

두 선수의 기량은 높았지만 다른 포지션들은 취약했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농사도 매년 흉작을 거듭했다.

신영철 감독은 빈약한 포지션을 위해 올 시즌 윤봉우(센터)와 강민웅(세터)을 품에 안았다.

윤봉우는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에서 플레잉코치로 뛰다가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현대캐피탈은 윤봉우에게 은퇴 이후 지도자 생활을 제안했지만 윤봉우는 현역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며 현대캐피탈과 일단 FA 계약을 한 뒤 한국전력으로 트레이드됐다.

삼성화재와 대한항공 등에서 후보로 전

전했던 강민웅도 지난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한국전력의 유니폼을 입었다. 강민웅은 올 시즌 주장으로 선임되며 책임감까지 더해졌다.

두 선수의 영입으로 전력이 급상승했다. 윤봉우는 이번 컵 대회에서 노련미를 앞세워 상대 공격수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강민웅은 적재적소에 불을 배급하면서 경기를 지휘했다.

외국인 공격수 아르파드 바로티도 독기를 품고 돌아왔다. 바로티는 2013~2014시즌 V-리그 OK저축은행에서 활약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재계약에 실패하며 한국을 떠났다.

2년 만에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온 바로티는 이번 시즌 V-리그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하며 드래프트에서 3순위로 한국전력의 선택을 받았다.

다시 돌아온 바로티는 예전과 달랐다. 높은 타점과 파워를 더하며 과감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전광인 서재덕과 함께 막강한 삼각편대를 이뤘다.

신영철 감독도 "올 시즌 바로티의 강점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컵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전광인의 부활도 신영철 감독을 웃게 만들었다.

전광인은 토종 거포로 이름을 알렸지만 지난해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에서 무릎 부상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 3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6 KOVO컵 프로배구대회' 결승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한국전력 바로티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슬럼프가 계속됐고 힘든 재합을 거쳐야 했다. 오랜 재합 끝에 컵대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광인이 돌아오자 서재덕도 함께 살아났다.

이번 컵대회 우승으로 한국전력은 올 시즌 V-리그 우승후보로 급부상했다. 신인들

의 패기와 노장들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컵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은 한국전력이 오는 15일 개막하는 2016~2017 V-리그에서도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LPGA 투어 6년 만에 우승 김민경, 세계랭킹 '경총'

6년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한 김민경(28·한화)의 세계랭킹이 13계단이나 경총 뛰었다.

4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 결과에 따르면 김민경은 지난주 42위에서 13계단 상승한 29위에 올랐다.

김민경은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LPGA 투어 레인우드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24언더파 288타를 쳐 2위 허미정(27·하나금융그룹)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0년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6년 만에 LPGA 투어 4승째를 거뒀다. 레인우드 클래식 준우승을 차지한 허미정도 55위에서 39위로 크게 순위를 끌어 올렸다.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들의 순위는 큰 변동이 없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여전히 1위를 지킨 가운데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전인지(22·하이트진로),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뒤를 이었다.

김세영(23·미래에셋)이 5위에서 6위가 되며 렉시 톰슨(미국)과 지리 바잠을 뒀다.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7위를 유지했고, 박성현(23·법스)과 양희영(27·PNS창호)도 8위와 9위를 지켰다.

/김민근기자

### 인판티노 FIFA 회장, "월드컵 본선, 48개국 확대"

잔니 인판티노(46)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수를 48개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4일(한국시간)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수를 48개로 늘리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FIFA는 로이테통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내년 1월 FIFA 평의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올해 2월 FIFA 회장선거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수를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번엔 8개국을 더 늘린 셈이다.

대회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새롭게 시드를 받은 16개국만 조별리그에 직행하고, 나머지 32개국은 단판승부를 펼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직행한 16개국과 단판승부에서 승리한 16개국이 함께 본선을 치르는 식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세계 축구를 발전시키고, 월드컵을 단순한 대회가 아닌 사회적인 이벤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전주중산초 아이스하키팀, 새로운 신흥 강호로 급부상

### '대구일보배 전국 초등학생 아이스하키 대회' 준우승

전주중산초등학교(교장 이용덕)의 아이스하키팀이 '2016 대구일보배 전국 초등학생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신흥 강호로 거듭났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구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이번 전국대회에 출전한 중산초 아이스하키팀은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대회에 임했다.

전국 28개팀,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고학년부(16개 팀·4~6학년)와 저학년부(12개 팀·유치부~3학년)로 나뉘어 3부 3라운드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가 펼쳐졌다.

고학년부 대비전그룹에 속한 중산초 아이스하키팀은 첫 경기에서 고양 아이스탑스를 만나 5대2로 승리를 거머쥐며

신평하게 출발했다.

다음날 이어진 준결승에서는 광주 브리드팀을 상대로 7대1이란 압도적인 스코어차이를 벌이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5년만에 올라온 결승전에서 대구 용지초를 만난 중산초는 아쉽게 3대1로 패하면서 우승을 놓쳤지만, 앞으로 있을 동계체전에 대비한 값진 경험이 얻었다.

특히 중산초 홍성현군(6학년)의 득점왕 타이틀 및 결승 진출은 우승의 아쉬움을 대신하기에 충분했다.

변선용 전문코치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값진 준우승의 성적을 거둘수 있었다"며 "앞으로 있을 동계체전에 대비해 더욱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산초 아이스하키팀은 1997년 창단, 저학년부 선수들의 지원이 꾸준히 늘면서 선수층이 두꺼워지는 등 전복을 대표하는 아이스하키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당구장이나 체육도장 등의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제처와 협업해 2016년 규제장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특히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문체부는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11개의 법령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